



Lessings Ringparabel

Nathan der Weise.

Ein
Dramatisches Gedicht,
in fünf Aufzügen.

Introite, nam et heic Dii sunt!

APVD GELLIVM.

Von
Gottbold Ephraim Lessing.

1779.

나탄: 옛날 옛날 한 옛날 동방의 어떤 나라에 한 남자가 살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받은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석은 오팔로 온갖 영롱한 광채를 발했습니다. 그리고 신통력을 지녀서 그걸 믿고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신과 인간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동방의 남자가 그 반지를 잠시도 손가락에서 빼지 않고 또 반지가 영원히 자기 집안에 남아있도록 조치를 취한 건 당연했습니다. 그 반지를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도 다시 그 반지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단단히 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오직 그 반지의 힘만으로 집안의 우두머리, 가장이 되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습니까, 폐하?

살라딘: 알아들었으니 계속하게.

나탄: 이렇게 그 반지가 아들에서 아들로 전해져 오다가 마침내 아들 셋을 둔 아버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에게 순종했으므로 아버지는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혹 어떤 때는 첫째 아들이, 다른 때는 둘째가, 또 다른 때는 셋째가, 세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와 단둘이 있어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다른 두 형제와 나누지 않아서 그랬지만, 반지를 받을 자격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 세 아들 모두에게 반지를 물려준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허나 죽을 때가 왔고 마음 좋은 아버지는 곤경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말만 믿고 있을 세 아들 가운데 둘을 실망시킬 일이 괴롭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은밀히 세공사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반지를 분떠서 두 개를 더 만들게 합니다.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모조품을 진품과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도록 당부합니다. 세공사는 그 일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세공사가 반지 세 개를 가져왔을 때 아버지조차 자신의 진짜 반지를 가려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기쁘고 만족해서 세 아들을 하나씩 따로 불러 축복과 함께 반지를 줍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폐하, 듣고

계신가요?

살라딘: (당황해서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며) 암, 듣고 있다마다. 빨리 이야기를 끝내기나 하게. 곧 끝나겠나?

나탄: 다 끝났습니다. 뒤에 계속되는 이야기는 뻔하니까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아들들은 각기 반지를 끼고 나타나 가장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해보고 싸우고 하소연도 해보지만 소용없는 일이지요. 진짜 반지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술탄의 대답을 기다린 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증명되지 않는 것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살라딘: 뭐야? 그게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란 말인가?

나탄: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서로 구별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게 했던 반지들을 제가 감히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걸 용서해 주십사 하는 것뿐입니다.

살라딘: 반지라고! 나를 우롱하지 말라! 내가 그대에게 열거한 종교들은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입는 것,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달라.

나탄: 그렇긴 하오나 그 근거라는 측면에서만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들은 모두 기록되거나 구전된 역사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란 오로지 신의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렇다면 누구의 신의와 믿음을 가장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자기 일족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핏줄이 같은 혈족,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사랑의 실증을 보여준 조상, 속임을 당하는 게 좀 더 유익할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를 결코 속인 적 없는 동족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폐하께서 폐하의 선조를 믿으시는 것보다 어찌 제가 제 조상을 덜 믿겠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같지 않을까요? 제가 폐하께 제 조상을 거역할 수 없으니 폐하 조상님들의 거짓을 질책하시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이치가 기독교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라딘: (방백) 과연 그래. 저 사람 말이 옳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군.

나탄: 다시 반지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지요. 말씀드린 대로 세 아들은 서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재판관에게 직접 아버지의 손에서 반지를

받았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마다 이미 오래 전에 아버지한테서 장차 반지의 특권을 누리게 되리란 언약을 받았노라고 진술했습니다. 그것 역시 사실이지요. 그들은 각각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거짓말하셨을 리 없으며, 이런 일로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를 의심하기 전에 형제들이, 평소 같으면 형제들의 좋은 점만을 믿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속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배신자를 찾아내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살라딘: 그러면 재판관은 어떻게 했나? 그대가 재판관에게 어떤 말을 시킬 것인지 듣고 싶군. 어서 이야기해보게.

나탄: 재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당장 이 자리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너희들을 이 법정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수수께끼나 풀려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진짜 반지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아니, 잠깐. 진짜 반지는 사랑받게 하는, 신과 인간에게 호감을 받게 하는 신통력을 가진다고 들었다. 그게 결정해야 한다. 가짜 반지는 그렇게 하지 못할 테니까. 자,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어서 말해보아라. 입을 다물고 있겠느냐? 반지들은 안으로만 작용하고 밖으로는 작용하지 않느냐? 각자 자기 자신만을 가장 사랑한다 말이나? 그렇다면 너희 셋은 모두 사기를 당한 사기꾼이다. 너희들의 반지는 셋 다 모두 진짜가 아니다. 진짜 반지는 아마 없어진 모양이다. 그 손실을 감추려고, 벌충하려고 아버지가 한 개 대신 세 개를 만들게 했던 것이다.”

살라딘: 훌륭하군, 훌륭해.

나탄: 재판관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판결 대신 내 충고를 듣고 싶지 않다면 그냥 돌아가거라. 하지만 내 충고는 이것이다. 이 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라. 너희들이 각각 반지를 아버지한테서 받았다면, 자기 반지가 진짜라고 확실히 믿어라. 아버지가 이젠 자기 집안에서 반지 하나의 전횡을 더는 용인할 수 없으셨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는 너희 삼형제를 모두 사랑하셨고 또 똑같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를 편애하여 다른 두 형제한테 서운한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 각자 아버지의 공평하고 편견 없는 사랑을 본받도록 노력하라. 자기 반지에 박힌 보석의 신통력을 현현시키려고 경쟁하라.

은유함과 진정한 화목과 옳은 행동과 신에 대한 진정한 복종으로써 그 신통력을 돕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 신통력이 너희들의 먼 후손에게서 나타난다면, 내가 수 천 수 만 년 뒤에 그들을 다시 이 법정에 부르겠노라. 그때는 나보다 현명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판결할 것이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그 겸손한 재판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Quelle:

Gotthold Ephraim Lessing: Hyōnja Nat'an. Übersetzung von Yun, Do Chung, Professor an der Sung sil Universität in Daejon, 1991.



Herausgegeben von der Lessing-Akademie
nach einer Idee von Frau E. Niemann (Wolfenbüttel),
unterstützt durch eine großzügige private Spende.



Lessing-Akademie
Schlossplatz 2 · 38304 Wolfenbüttel
Tel.: (05331) 808-227 · Fax: (05331) 808-248
E-mail: lessingakademie@hab.de · www.lessing-akademie.de